

■ Digital & IT

PC업계 여심잡기 경쟁

깜찍하고 화려하게 디자인을 입다

“여심(女心)을 잡아라” 컴퓨터 업계에 내려진 특명이다. 노트북이나 넷북 등의 주요 구매자층인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업계는 예쁘고 고급스럽거나 귀엽고 깜찍한 디자인을 잇달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은 여성들이 들고 다니기 편하게 크기와 무게를 대폭 줄여 핸드백에 들어갈 정도로 작고 가볍게 만드는 등 ‘여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넷북·노트북에 바비인형·나비문양 입혀 출시

더 얇게 더 가볍게 … 초경량 제품으로 승부

◇ 바비인형·헬로키티 디자인 등 깜찍함으로 승부= 삼성전자는 최근 바비인형을 주제로 디자인한 융트라씬 노트북 ‘센스 X170 바비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 핑크와 블랙 컬러에 바비를 소재로 한 아이콘을 배치하는 등 화려한 디자인이다. 또 바비를 주제로 특별히 디자인된 다양한 종류의 바탕화면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바비 스페셜 에디션’은 25.4mm의 얇은 두께에 최대 9시간 사용이 가능해 야외에서 쓰기 편리하다. 가격은 130만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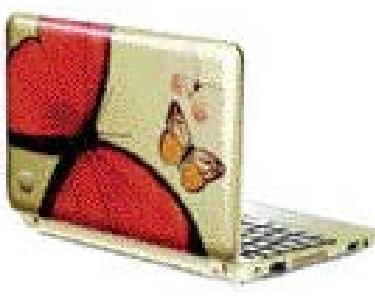
홍콩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비비엔 탐의 나비 문양 디자인을 적용한 넷북(미니 노트북)인 HP의 ‘Mini 210 바비엔 탐(Vivienne Tam)’(이하 HP 바비엔 탐2)도 출시됐다. ‘HP 바비엔 탐2’는 HP와 패션 디자이너 비비엔 탐과의 협업으로 탄생된 두 번째 스페셜 에디션이다. 가볍고 슬림한 크기로 디자인을 중시하는 여성 소비자들을 겨냥해 은은한 골드 바탕에 엘로우, 레드 컬러의 나비 문양을 새겨 넣어 여성스러운 화려함을 강조했다. ‘HP 바비엔 탐2’는 10.1인치 화면에 HD LED

와이드 스크린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1.22kg의 무게에 5.5시간의 배터리 지속 시간이 장점이다. 가격은 74만9000원.

노트북과 넷북 뿐 아니라 가정용 PC도 깜찍함으로 승부하고 있다. 미니 컴퓨터 전문 제조 업체인 모뉴엘이 선보인 제품인 ‘미뉴 A10 헬로키티’는 본체크기가 가로 20cm, 세로 21cm, 높이 7cm로 가로 30~40cm의 일반 PC보다 훨씬 작다. 헬로키티(HelloKitty) 캐릭터를 제품 전체에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전반적으로 깔끔하면서도 깜찍하게 디자인됐다.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까지 85만원.

◇ 핸드백에 속 들어가 휴대편리= 무겁고 큰 노트북은 여성들이 휴대하기 불편해 꺼려한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좀 더 작게, 좀 더 가볍게’ 만들며 여성들을 공략하고 나섰다.

소니코리아의 ‘바이오X 프리미엄 글로벌 블랙’은 760g이라는 가벼운 무게에 1.4cm가 채 안되는 얇은 두께가 장점이다. 이 때문으로 스타일을 망치는 큰 노트북 가방이 필요 없다. 이 제품들의 가격은 139만~220만원.



HP 'Mini 210 바비엔 탐2'



LG '엑스노트 X300'

모뉴엘 '미뉴 A10 헬로키티'
제작임에도 매우 세련됐다. 또 작은 여성용 핸드백에 휴대하기에 충분히 가볍다. 이 때문에 스타일을 망치는 큰 노트북 가방이 필요 없다. 이 제품들의 가격은 139만~220만원.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SKT 가입자 2500만명 돌파

이동전화 서비스 개시 26년만에

SK텔레콤이 이동전화 25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국민의 51.2%, 2명 중 1명이 SK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카풀 형태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시한 1984년 4월 이후 26년 만이다.

이동전화가 본격 대중화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SK텔레콤이 판매한 휴대전화 수는

1억3000만대로, 한 줄로 연결하면 지구를 반 바퀴 도는 거리다.

1996년 이후 총 누적통화시간은 8만7339년 10개월 27일로 전세계 65억 인구 동시에 7분여 시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수가 2500만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음성통화료 단계별 인하, SMS 요금 인하, 가입비 인하 등 고객들의 통화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한몫을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명엘리베이터 장성공장에 ‘시험타워’

승강기 전문업체인 대명엘리베이터(대표 이사 최광일)는 장성군 동화면 장성공장에 엘리베이터 시험타워(사진)를 건립, 19일 준공식을 열었다.

15m 높이의 시험타워는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인 MRL 기종으로 엘리베이터 작동 상태를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누드형으로 설치됐다.

기술표준원 선정 승강기 보수 품질 우수업체인 대명엘리베이터는 이 시험타워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의 핵심장치인 제어 및 착상장치 등을 시험하게 된다.

최광일 사장은 “시험타워 준공으로 엘리베이터의 안전성과 승차감 등을 시험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원클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OK

이달 말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한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납부가 한결 쉬워졌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 운영방식을 더욱 단순화, ‘원클릭’ 형태로 개선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득종류가 단순하고 납부세액이 적은 영세사업자는 특별한 수정내용이 없을 경우엔 ‘신고하기’만 클릭하면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지난해말까지만 신고·납부한 ‘연말정산’ 내역이 인터넷 화면으로 제공돼 누락된 항목만 수정하면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다.

/운영기자 penfoot@

“내 차가 이상해요” 결함 신고 급증

도요타 여파… 올 1400여건 접수

올해 초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도요타 리콜 여파로 올들어 국내에서도 차량 결함 신고건수 1400여건도 맞먹는 수치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와 소비자보호원, 국토부에 신고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총 1400여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20여건 보다 1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작년 1년 전체 신고건수 1400여건도 맞먹는 수치다.

가속페달이나 브레이크 등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이나 안전운행 장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접수건수 가운데 실제 리콜로 이어

진 경우는 없었다.

국토부는 리콜 신고가 접수되면 중복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30일 간의 기초조사를 벌인 뒤 정밀조사를 실시해 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작년 한 해에는 총 81개 차종에 15만8835대가 리콜됐고, 올해는 지난 18일 현재 19개 차종에 12만6312대가 리콜 조치됐다.

/연합뉴스

도요타 렉서스 1만500대 리콜

일본 자동차업체인 도요타가 핸들 결함으로 전세계적으로 렉서스 모델 1만500대를 리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리콜 대상은 해외 시장에서 7000대, 일본 시장에서 4500대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제작부 품질 향상입니다. •제작부 신고합니다. •제작부 결제 합니다.



국제보청기
www.international-hearing.com



본 텔 (052) 227-9940

불교대학부 신고부 결제부

충청북 (052) 227-9970

온전전 (061) 752-9940

모포전 (061) 282-9200

한남전 (061) 851-2422

더 가까워지는 제주도

1시간 40분 마무리 완

정남진항(장흥)

출발 09:00 ~ 도착 10:20

출발 15:10 ~ 도착 16:30

성선포항(제주)

출발 13:00 ~ 도착 14:40

출발 19:30 ~ 도착 20:50

항공편	정기선	정기선	정기선
제주항공	09:00	10:20	11:40
제주항공	15:10	16:30	17:50
제주항공	19:30	20:50	22:10

이른 내일로 제주도를 즐려보~

제주도 관광객 1인당 4만 원에 입장료 면제

롯데아트 히든점 2F

(주)롯데 히든점 히든점

제작부 TEL. 070-8711-1114 HP. 010-6800-3666

